2004 수행 결산

禪 황금시대 활짝

'이미 선풍(禪風)은 불었다. 이제는 어떻게 실참으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문제다.'

2004년 한국불교계는 전국을 휘감은 '선바람'의 수행열기를 타고, '전통선(禪)'의 진수를 아낌없이 보여줬다. 올 초 조계사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법회'(2월 15~5월 9일)를 필두로, 봉은사의 '봉은학림 육조단경 논강'(2월 21일~4월 10일), 보문사의 '선사 초청 산림법회'(3월 21~27일), 대구 동화사의 '담선법회'(9월 4일~11월 13일), 서울 불광사의 '불교수행법 특별강좌(10월 17일~12월 23일)' 등 선 관련 법회가 연중 끊이질 않고 열리면서 '수행 붐'을 일으켰다. "한국불교 선의 중흥기가 도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불교계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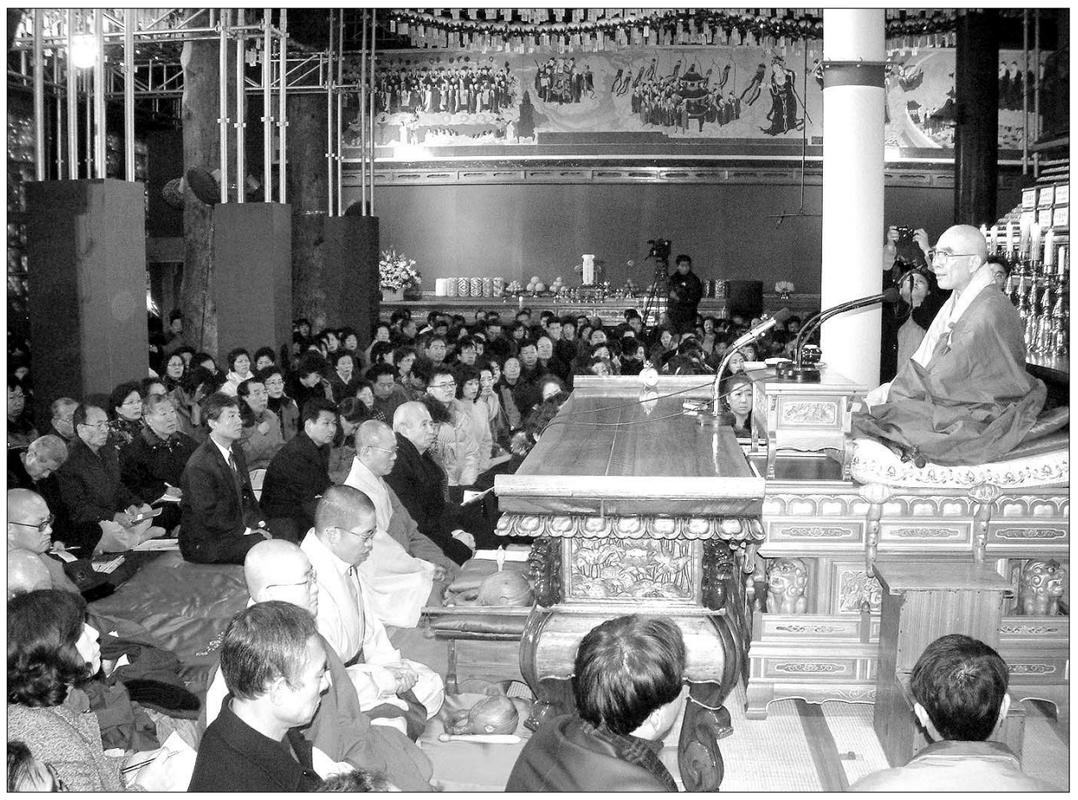
재가불자들이 직접 일으킨 수행열풍도 만만치 않았다. 조계사 청년회는 올 1월까지 참선, 염불, 사경 등의 '수행법 대강좌'를 열었고,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여름·겨울 안거기간에 맞춰 '수행논강'을 여는 등 재가불자들의 수행욕구를 채워줬다.

제3 수행법에 대한 '간화선 위기론'도 어느 정도 잠재웠다.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국선원장 초청 법회'의 경우, '선의 본질과 의미' '화두 드는 법' '선수행의 요체' '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등을 주제로 무엇이 간화선의 고갱이이고, 어떻게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같은 흐름에 호응하듯 조계종도 올 초 <불자 수행프로그램 현황 조사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내년 2월 간행 예정으로 <간화선 수행지침서>와 <신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교안>을 마련하고 있어 간화선 수행풍토를 진작하는데 나섰다.

하지만 적지 않은 과제들도 남겼다. '선과 수행'이란 키워드로 집약되는 수행 붐을 어떻게 실참 단계로 이끌지, 또 '문답-점검 시스템'의 복원과 간화선의 대중화를 어떻게 구현할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굵직한 화두로 남았다.

올 한 해 동안 불교계에서 선과 수행 관련 법회는 무엇이 있었고, 수행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풀어야 과제는 무엇인지 결산한다.



불자와 일반인들의 선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올 한 해는 서울 조계사, 불광사, 대구 동화사 등 많은 사찰과 수행단체가 '선' 관련 법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2월 15일부터 4개월간 매주 열린 서울 조계사 '전국선원장초청 법회'.

'조계사 선원장 법회' 필두로 禪법석 줄이어
선 담론 본격화…간화선 위기론은 '기우'

●거세게 분 '선바람', 수행열기 확산

올 들어 열린 선 관련 법회는 조계사 전국 선원장 초청 법회, 대구 동화사 담선대법회 등 줄잡아 20여 곳이 넘는다. 법회 형식도 논주와 논사가 발제와 논평을 맡는 '논강', 직지인심견성성불의 안목을 드러내는 '담선(談禪)법회', 누구나 진리의 법연에 동참할 수 있는 '무차법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마련했다. 참가인원도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3000여명 이상이 법회에 운집, 선에 목말라 하는 참석자들의 갈증을 적셔줬다.

이처럼 선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거 수행에 들어가는 재가불자들도 크게 늘었다. 연 인원 3천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화두'를 들고 전국 50여 시민선방에서 가부좌를 틀었으며, 직장인 주부 사찰수련회 동문회 회원들도 매주 또는 매달 정기철야참선에 동참해 출가자 못지않는 용맹정진을 일상화했다.

선어록 공부모임도 늘었다. 선사들이 깨닫기까지의 수행과, 깨달은 순간들의 상황을 기록한 선어록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선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자 해서다.

선어록을 강의하고 있는 선원이나 수행단체는 서울 강남포교원, 안국선원, 우곡선원, 무심선원 등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선어록연구소의 경우는 교학적인 차원에서 강의가 진행됐다.

이러한 선어록 공부는 재가불자들이 자칫 빠져 있기 쉬운 삿된 견해에서 벗어나 바른 견해를 갖추도록 지도해 주는 특징으로 각광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선(禪)을 말하다

조계종 전국선원장회의 의장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은 "올해의 수행 열기는 모든 불자들이 발심을 통해 스스로 증득해가는 수행풍토를 조성했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했다"며 "출가자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선'이 대중적으로 논의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의 간화선이 희망적인가'를 점검한 대구 동화사 담선법회의 경우, 지금의 간화선 수행풍토를 짚어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간화선 수행법, 화두 참구법, 간화선병과 선수행의 제문제, 선지식의 부족, 간화선의 사회적 역할,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담선법회는 간화선 현실을 진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은 "담선법회는 한국 간화선의 현실이 절망적인지 희망적인지 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확인시켜줬다"며 "확실한 것은 불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경전·어록을 공부한 상태에서 간화선 공부에 들어간다면 틀림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무엇을 남겼나

이러한 선 법회는 무엇보다 재가불자들의 수행관을 바꿔놓았다. '기복불교' 수준이나 단순히 또는 절에 다니며 불공 올리는 일로 만족하거나 책으로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지식불교'를 넘어 자기수행을 위한 '실참'에 눈을 뜨게 했다.

선원장 초청 법회의 경우, 선사들이 법문 후, '즉문즉답'의 형식으로 참가자들의 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다. 또 선방에서 수좌들과 직접 실참실수(실지로 선을 닦는 것) 해온 선사들이 오랫동안의 수행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간화선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풀어줬다. 때문에 부족한 시민선원에서 마땅한 지도자 없이 참선 공부를 하고 있는 재가불자들에게 선수행의 나침반이 됐다는 평이다.

이러한 실참에 대한 관심과 의욕은 108배 참회, 간경, 염불, 사경, 사불 등을 직접 해보고 하자는 불자들이 늘어나는 기폭제가 됐다. 조계사청년회의 수행법 대강좌에는 매회 3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또 수원포교당이 마련한 '108 대참회 기도 및 6바라밀 강의'에는 매일 100여명 이상이 동참하는 등 수행을 체험하려는 재가불자들이 꾸준히 늘었고, 대구 법왕사의 '1만 배 정진대법회', 봉은사의 '참살림 수행결사' 등에도 불자들의 발길이 끊없이 이어졌다.

'간화선 지침서' 발간 등 수행체계 확립 노력
문답식 점검 정립·지도법사 양성 등 과제로

●문제점은 없었나

우선 지적돼야 할 것은 참선 법회들이 과연 재가불자의 수행 '눈높이'에 맞추었는가다. 대구 동화사가 '참선(간화선)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담선법회의 경우, 진행방식이 무차법회와 논강으로 혼재되면서, 담선법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내용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수좌들과 선학자의 시각차이를 좁히지 못해 간화선에 대한 서로의 의견만을 팽팽하게 대립시켜 혼란도 초래했다.

지환 스님은 이와 관련 "앞으로 재가불자 수행법 지도와 간화선 수행법 쟁점사항은 분리·구분해 담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가불자들이 참선공부에 앞서 기본적인 공부와 단계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간화선 수행을 어떻게 실참으로 연결시킬지, 그 구체적인 '길' 제시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조계사 선원장법회에 초청됐던 서울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은 "올해 열린 참선 법회은 재가불자들에게 바른 믿음과 눈 밝은 지도자를 만나 '왜 간화선을 해야 하는지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계기는 됐다"고 평했다. 하지만 "정작 재가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간화선을 어떻게 실참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스님들은 재가불자가 시민선방 등에서 실질적으로 간화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도 "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행 붐은 한국불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올해 열린 법회들이 간화선을 알리는데 왜곡한 것은 없는지 불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과제는

이러한 수행열기를 채워 줄 올바른 간화선의 수행법과 문답법, 점검체계 등을 바르게 파악, 시대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이는 선지식의 부족, 수행체계 미확립, 제3 수행법의 홍수 등으로 간화선의 정체성 확립과 직결된 지적들이다.

때문에 불교계는 △간화선 수행풍토 확립 △선문답·지도점검 등의 조사선 공부법 복원 △'생활선'을 통한 선의 대중화 △상설 시민선원 개설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 초 간화선 정체성 확립과 선풍진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선원장 초청 특별좌담'에서는 간화선 수행 공간 마련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인경 스님(명상상담연구원장)은 특별 좌담에서 "선어록 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등 간화선 대중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태완 무심선원장은 "체계적인 수행지침서도 필요하지만, 시민선방에서 재가불자들을 이끌 지도법사 양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스승과 제자간 문답-점검 시스템 복원은 조사선의 전통에 따른 간화선 정체성 확립은 물론 간화선 중흥의 열쇠가 된다. 예를 들어 선도회의 '입실(入室) 지도', 서울 안국선원, 육조사 등의 문답식 지도법이 바로 그 구체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 조계종이 <간화선 수행지침서>와 <신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교안> 발간으로 이러한 수행붐은 더욱 확산될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행열기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 줄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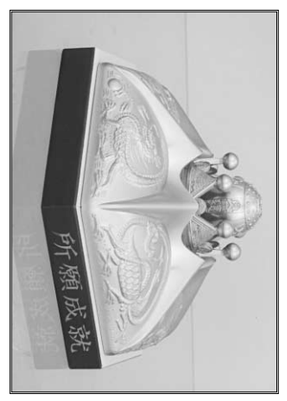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54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등
· 작 법 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 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 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4년 12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4년 12월 30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간(肝)이 염 간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드립니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새로운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드립니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